

KIA '특급 신인' 이의리, 2선발 파격 발탁... 다음달 4일 출격

스프링캠프서 쟁쟁한 선배들 선발경쟁서 구위 과시

윌리엄스 감독 "볼끝 힘 좋아... 변화구도 일취월장"

KIA 타이거즈 특급신인 이의리(19)가 개막 2선발로 나선다. 상대는 두산 베어스이다.

맷 윌리엄스 감독은 29일 KT위즈와의 광주 시범경기에서 앞서 이의리를 오는 4월4일 두산과의 잠실 경기에 선발등판시킨다고 밝혔다. 이의리는 원래 예정된 30일 시범경기 선발등판보다 하루 앞당긴 이날 선발투수로 예고했다. 일요일 경기에 맞추기 위한 수순이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의리의 등판을 하루 앞당긴 이유에 대해 "산수를 하면 이유를 안다"며 웃었다. 예정된 일요일 등판의 역순

으로 이날을 선택했다는 말이었다. 이어 "오늘 던지면 두산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토요일(개막전)에 비 예보가 있지만 현재는 일요일 등판한다"고 말했다.

이의리는 스프링캠프에서 쟁쟁한 선배들과 선발경쟁을 벌였고 확실한 구위를 과시하며 개막 두 번째 선발투수라는 중책을 맡게됐다. 140km대 후반의 직구와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까지 안정된 스트라이크존 공략을 보여주면서 인정을 받았다. 실전 마운드에서 신인답지 않은 괴물의 향기를 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의리를 2선발로 발탁

한 배경도 설명했다. "첫 번째는 볼끝의 힘이 좋다. 특히 스트라이크존 지나는 순간 힘이 굉장히 좋았다. 가장 높게 보고 있는 것이다. 직구의 나오는 구속보다 타자 입장에서 보면 볼이 더 빠르게 보인다는 것이다"고 칭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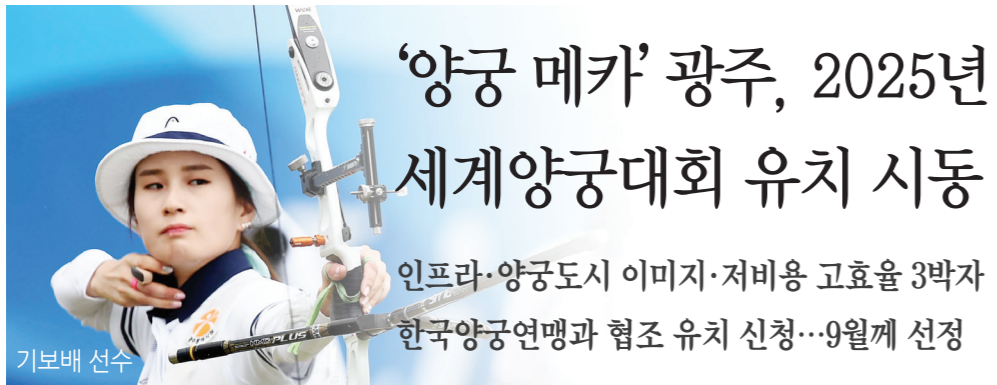
이어 변화구도 일취월장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캠프에서도 직구가 잘 잡히면 체인지업도 잘 먹혔다. 최근에는 슬라이더와 커브도 스트라이크를 던진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볼을 감추고 던지는 디셉션도 이야기 했다. "이것도 포함된다. 결국 투수는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 것이 하는 일이다. 디셉션이 좋다. 혹은 볼이 마지막에 가서야 타자들이 판단하거나, 볼끝이 좋으면 확실한 좋은 투수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리가 발탁되면서 KIA 선발진도 진용을 꾸렸다. 애런 브룩스-이의리-다니엘 뎀-



텐-임기영-이민우의 순서로 개막 로테이션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양궁 메카' 광주, 2025년 세계양궁대회 유치 시동

인프라·양궁도시 이미지·저비용 고효율 3박자 한국양궁연맹과 협조 유치 신청...9월께 선정

'양궁 메카' 광주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광주시는 29일 "단일 종목 최대 국제스포츠 행사 중 하나인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세계양궁연맹(WA)이 주관해 2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대회로, 리커브와 컴파운드별 개인과 단체, 혼성팀 경기를 펼치며 통상 80~100여 개국에서 참가하는 국제 대회다. 2019년 네덜란드 대회에는 88개 국, 9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2009년 울산시가 개최한 바 있고, 올해는 미국 양크턴, 2023년에는 독일 베를린이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가 2025년 세계대회 유치에 나선 것은 차별화된 인프라와 양궁 명문도시라는 점, 저비용 고효율 대회가 가능하다는 점이 3대 배경으로 작용했다.

우선 인적·물적 인프라가 강점이다. 국제 규격 양궁장을 갖추고 있고, 선수 육성과 저비용 확대를 위한 시스템도 초·중·고·대학·일반팀으로 체계화했다.

대회가 열리는 광주 국제양궁장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양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신축한 연면적 3201㎡ 부지 4만5396㎡ 규모의 국제경기장으로 1077석의 관중석을 갖춘 2층 건물과 580석의 관중석을 갖춘 야외경기장으로 구성됐다.

2019년 중국과 일본,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전지훈련을 다녀갈 정도로 뛰어난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아시아 25개국, 316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아시아컵 2차 양궁대회가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도심 속 양궁장으로 선수단 숙박과 식사, 이동 등에 지역거점 업체들을 적극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2년 전 세계수영대회까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국제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도 한껏 높아진 상태다.

인적 자원도 풍부해 여대부 최강인 광주여대와 여자 일반부 강자 광주시청에 이어 최근엔 남구청이 남자양궁단을 창단했다.

광주는 17세의 나이로 신궁 김진호를 꺾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 하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서향순 선수와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에 빛나는 기보배 선수 등 세계적 선수들이 태어나거나 활동중인 양궁 메카로도 세계적 명성을 날리고 있다.

저비용 고효율대회라는 점도 유치 배경 중 하나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일 국제 스포츠이벤트"라고 강조했다.

이용섭 시장은 "2025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양궁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며 "광주는 대한민국의 양궁도시라는 명성에 맞게 글로벌 스포츠 마이스 도시, 광주 브랜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붕괴' 흥국생명, 역대 두 번째 불명예 위기...챔프전 한 세트도 못따

오늘 3차전 홈구장 인천서 열려...5전3선승제 벼랑 끝 위기



28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2020-2021 도드람 V-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에서 흥국생명이 패하자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강력한 우승후보로 시즌을 출발했던 흥국생명이 챔피언결정전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패할 위기에 처했다.

흥국생명은 28일 열린 GS칼텍스와 2020-2021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졌다.

5전3선승제의 챔피언전에서 1, 2차전을 연달아 패한 흥국생명은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내용은 더 참담하다.

흥국생명은 1차전과 2차전 모두 세트 스코어 0-3으로 패했다. '왕중왕'을 가리는 챔피언

이지만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1차전에서 흥국생명이 한 세트에 얻은 최다 점수는 1세트 18점이다. 2세트에서는 14점에 그치더니 3세트 17점으로 빠르게 무너졌다.

2차전에서도 반응은 없었다. 흥국생명이 힘한번 써보지 못하면서 두 경기는 모두 1시간 30분도 안 돼 끝났다.

흥국생명의 챔피언 부진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다. 시즌 마지막 상대인 자매 이재영, 이다영이 학교 폭력 논란으로 출전 금지 징계를 받으면서 전력의 크게 약화됐다. 외국인 선

수 브루나가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김연경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플레이오프에서 IBK기업은행을 물리치고 챔피언전에 올랐지만 정규리그 우승팀인 GS칼텍스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고 있다.

역대 여자부 챔피언전에서 한 세트도 얻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경우는 단 한 번 있었다. 흥국생명은 두 번째 불명예를 쓸 위기에 몰렸다.

2015-2016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인 IBK기업은행은 챔피언전에서 현대건설을 만나 3경기 만에 왕좌를 내렸다.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한 허무한 패배였다.

IBK기업은행 맥마흔은 손가락 부상을 당해 챔피언전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김희진도 부상으로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았다. IBK기업은행에 비해 현대건설은 양효진, 에밀리, 황연주, 한유미 등 막강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챔프전이 3경기 만에 끝난 것도 역대 세 번 뿐이다. 2015-2016시즌 아픈 기억을 썼던 IBK기업은행은 2017-2018시즌 챔피언전에도 올랐지만 한국도로공사에 3경기를 내리 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 경기 치열한 승부를 벌이면서 1차전에서 2세트를 따냈고, 2, 3차전에도 1세트씩을 수확했다.

2014-2015시즌에는 한국도로공사가 IBK기업은행에 3경기를 연달아 패했다. 데스티니, 박정아, 김희진의 삼각편대가 버티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니콜 혼자 버티야 했던 IBK기업은행은 2차전 2세트만 가져오며 체면치레를 했다.

흥국생명의 운명이 걸린 챔피언결정전 3차전은 30일 흥국생명의 홈구장인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다.

김광현, 부상자명단에서 시즌 시작 허리통증으로 개막 로스터 합류 불발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두 번째 시즌을 부상자명단(IL)에서 시작한다.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29일(한국시간) 개막 로스터와 함께 부상자 명단에 오른 선수를 발표했다.

김광현은 IL에 포함됐다. 투수 마일스 마이클러스, 외야수 해리스 베이더도 IL에 등재됐다.

김광현은 허리 통증으로 시범경기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

지난 9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을 마치고 다음 등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그는 이후 재활 과정을 밟았다.

캐치볼과 볼펜피칭,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단

계를 밟아 지난 28일에는 마이애미와 시범경기에서 등판했다. 19일 만에 실전경기를 소화한 그는 2이닝 3피안타 2실점을 기록했다.

시즌을 치르기 위해서는 컨디션을 더 끌어 올려야 한다.

김광현도 마이애미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앞으로 공격적으로 빌드업할 것"이라며 초반 로스터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건강한 시즌을 치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본다. 합류 후에는 다시 아프지 않도록 몸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을 회복한 만큼 공백은 길지 않을 전망이다. MLB닷컴은 "김광현은 조만간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

박인비, KIA클래식서 와이어투와이어 우승...통산 21승

세계랭킹 4위 박인비(33)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21승을 달성했다.

박인비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칼스버드의 아비아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KIA 클래식 4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3개를 쳐 2연

KLPGA 투어 통산 21승을 올린 박인비는 한국인 최다승 기록 보유자 박세리(25승)에 더욱 다가갔다.

올해 첫 대회에 나와 우승을 거둔 박인비는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대표팀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박인비는 리우

최종하에게 14언더파 274타...2위 그룹 압도적으로 따돌려

지난해 2월 호주여자오픈 이후 약 13개월만에 정상에 올라

더파 70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친 박인비는 2위 그룹을 5타차로 따돌려 우승을 거머쥐었다.

박인비는 대회 내내 압도적인 기량과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2월 호주여자오픈 이후 약 13개월 만에 정상에 섰다.

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

에이미 울슨과 렉시 톰프슨(이상 미국)은 최종합계 9언더파 279타를 쳐 나란히 공동 2위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6)은 마지막 날 2타를 줄여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김효주(26)와 호주교포 이민지는 7언더



파 281타를 기록해 공동 5위에 자리했고, 유소연(31), 양희영(32), 신지은(29)은 4언더파 284타로 공동 12위에 랭크됐다.